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 1501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 1501

거지

말

지

X

사진에
관하여

거지

말

X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15. 04.30(목)
— 06.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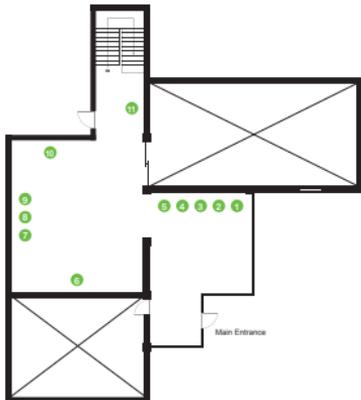
초청인.
05.13(수) 17:00

의

구본창	권순관
권오상	김도균
김진희	김태동
노순택	문형민
박진영	백승우
원성원	윤병주
장보운	정연두
정희승	하태범
한경은	황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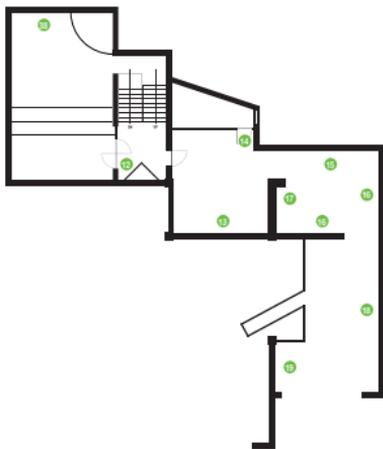
후원. 서울특별시





Ground

1. 구본창, Soap 35, 2007
2. 구본창, Soap 24, 2006
3. 구본창, Soap 30, 2006
4. 구본창, Soap 09, 2007
5. 구본창, Soap 03, 2004
6. 노순택,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 2011
7. 박진영, 란도셀, 2011
8. 박진영, 아구글러브, 2011
9. 박진영, 카메라들, 2011
10. 하태범, 파키스탄폭탄테러, 2010
11. 김도균, w.ttm-06, 2015



Mezzanine

12. 김도균, w.ttm-01, 2015
13. 백승우, Memento 2015, 2015
14. 김도균, w.ttm-02, 2015
15. 장보윤, 기억보조장치, 2012
16. 장보윤, 천년고도, 2012
17. 장보윤, 천년고도 영상, 2012
18. 정희승, 끝나지 않은 문장 1 (열 개의 사진 액자), 2014
19. 문정민, Unknown City #19, 2008



Basement

20. 김태동, 데이 브레이크-053, 2013
21. 김태동, 데이 브레이크-029, 2011
22. 한경은, Restoration and balance, 2015
23. 김진희, 예상하지 못한, 2014
24. 김진희, 아주 이상한 느낌, 2014
25. 김진희, 말을 했지만, 2014
26. 김진희, 싫어, 2014
27. 권오상, Metabo, 2009
28. 원성원, Dreamroom-Seoungwon, 2003
29. 원성원, Dreamroom-Beikyong, 2004
30. 권순관, 어둠의 계곡, 2014
31. 정연두, Drive in Theater, 2013
32. 김도균, w.ttm-07, 2015
33. 김도균, w.ttm-08, 2015
34. 권오상, with Lean, 2009
35. 김도균, w.ttm-09, 2015
36. 황규태, uranology(천상열차분야지도), 2005
37. 김도균, w.ttm-11, 2015
38. 윤병주, Exploration of Hwaseong, 2013
39. 윤병주, Rover Mission, 2013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Lies of Lies: On Photography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어느 사진작가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사진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다. 작가는 사진으로 거짓말하기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 시간 작가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냐는 듯 자신있게 사진은 사실의 기록이고 증거라고 답했다. 자신에 차 있는 표정의 학생들에게 작가는 사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다. 아이들은 머뭇거리며, 선뜻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잘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여 포토샵과 같은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진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에 능했다. 사각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앵글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해 능청스레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종종 사진이 현실을 그대로 찍는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사진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는 사진의 거짓말에 대한 전시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하는 다큐사진(노순택, 박진영)에서부터 세상을 조각조각 사진으로 찍어 그것들로 실재하지 않는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진(원성원), 사진이 원래 있었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되는지 기억과 사진에 관한 작업(백승우, 장보운), 일상의 공간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낯설게 다가오는 지를 보여주는 사진(김도균, 정희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과연 거짓말의 거짓말은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짓말이라면 어떤 거짓말일까.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 전시에 소개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통해 카메라의 시선으로 세상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구본창

KOO
Bohnchang



soap 09
80x66cm, Archival Pigment Print Edition of 10, 2007

구본창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 디플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작품 제작 시 눈에 익숙했던 대상물을 클로즈업하거나, 다른 상황에 던져 보여주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대상물의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대상물들은 마치 무작위적이며 권태로운 듯 나열된 것들이며 대체로 뒤편에서 소외된 것들, 또는 사라져버릴 운명의 것들이다. 이러한 대상물은 당시 작가의 심경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이 시대에 잊혀질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일부와 같은 모습이다.

삼성 로댕갤러리(2001년), 미국 피바디에섹스뮤지엄(2002년), 파리 갤러리카메라옵스큐라(2004년), 국제갤러리(2006년), 교토 카히츠키미술관, 부산 고은사진미술관(2007년), 필라델피아미술관(2010년) 등 국내 외에서 4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총감독과 2013년 파리 PHOTOQUAI에서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2014년 프랑스 아를사진페스티벌에서는 디스커버리 상의 노미네이터를 맡았다. 그의 작품은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보스턴미술관, 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아트, 교토 카히츠키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국내외 다수의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작품집으로는 한길아트 '숨', '탈', '백자', 일본 Rutles '白磁', '공명의 시간을 담다' 등이 있다.

권순관은 상명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권순관은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여러 층위에서 맞닿은 힘들의 관성과 전체상으로서의 구성 속에서만 활동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다. 여러 작업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과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의 세부적 장치가 사물화된 실재성의 핵심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전도된 여러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맥락으로 전환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적 질서로서의 사실이 갖는 '가치'의 기반을 흔들고자 한다.

2007년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상〉을 수상했고, 2013년 경희대 미술관에서 개인전 〈미완성의 변증법적 극장〉을 전시하였으며 〈행위의 실행〉(2009, 성곡미술관, 서울), 〈영역으로부터 고립되다〉(2006, 대안공간 풀, 서울) 등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에 참여했다.

어둠의 계곡, 180x255cm, Digital C-print, 2014



권순관

KWON
Sunkwan

권오상

GWON Osang



Metabo, 130x80x105cm, C-print, Mixed media, 2009

권오상은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다. 권오상은 '조각'의 주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인 '데오도란트 타입 Deodorant Type' 시리즈는 스티로폼과 같은 가벼운 재료로 형태를 조각하고 사진을 조각의 표면에 덧입히는 작업으로, '사진 조각'과 '가벼운 조각' 두 개의 축을 세우며 한국 현대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개인전 <Sculpture>(2011, 두산갤러리, 서울), <Adore>(2011, 안도 파인아츠, 베를린, 독일), <OSANG KWON>(2012, 아라리오 갤러리 청담, 서울), <Structure>(2014, 페리지갤러리, 서울), <New Structure>(2015, 백아트, LA, 미국) 등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싱가포르미술관(Singapore Art Museum)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도균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콘스트 아카데미 마이스터실러와 아카데미브리프에서 수학했다. 평범한 건축물의 인공성에 주목한 <A>시리즈에서부터 <SF>시리즈에 이르는 김도균의 작업에는 일관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우선 그가 선택하는 피사체가 주로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상상력이 발휘되는 건축물을 선택한 후 가장 스펙터클하고 초현실적인 글을 포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그렇게 선택된 건축물은 각기 그것들의 고유성을 잃고, 가상의 색면 이미지로 재탄생 된다. 김도균은 사진은 단순히 건축물 본연의 미학적 효과를 노린 건축 사진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각적,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인 반응의 복합체이기를 바라고 있다.

<p>(2015, 페리지갤러리, 서울), <KDK b.ios.lu.sf.w.>(2014, 신세계 백화점본관 아트월, 서울), <Space Odyssey>(2013, KAIST 경영대학SUPEX, 서울), (2012, 갤러리2, 서울), <Facility Skins>(2011, Michael Schultz, 베를린, 독일) 등 다수의 개인전을 했으며, 안도파인아츠, 삼성미술관 플라토, 갤러리플래닛, 백남준아트센터, 광주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금호미술관 등 많은 기획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IKB Deutsche Industriebank, UBS, 삼성미술관 리움, 마리오보타 컬렉션,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w.ttm-02
90x120cm, C-print mounted on plexigals iron framed, 2015



김도균

KDK

김진희

KIM Jinhee



말을 했지만, 122x96cm, Embroidery on digital pigment print, 2014

김진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여성들의 숨겨진 내면과 감정, 기억에 집중한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왔으며, 인물들의 관계와 기억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며 작업하고 있다.

개인전 <whisper(ing)>(2012, 트렁크갤러리, 서울), <이름 없는 여성, She>(2014, 송은아트큐브, 서울)을 가졌다. <Young Portfolio Acquisitions 2013>(2014, 기묘사토 사진미술관, 일본), <제12회 사진비평상 수상자전>(2011, 이룸갤러리, 서울) 등 국내외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기묘사토 사진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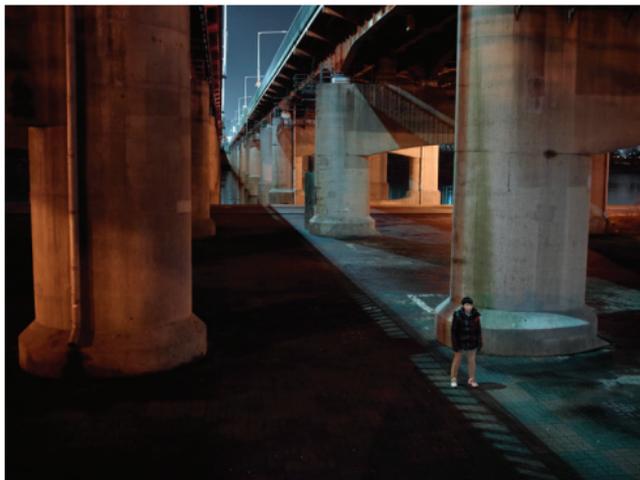
김태동은 중앙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사진학과 순수파트를 졸업했다. 작가는 도시의 공간적 지역적 경계를 탐험하고 그 도시의 기묘하고 낯선, 때로는 자신이 거주했던 곳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한다. 도시공간과 특정 시간을 먼저 이미지화하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공간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 사진매체가 관객에게 주는 상상력에 주목한다.

2011년 KT&G상상마당에서 주최하는 SKOPF AWARD에서 최종작가 3인, 2012년 갤러리룩스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일우재단에서 주최하는 제4회 일우사진상을 수상하였으며 일우스페이스에서 개인전 <Day-Break-Days>(2013)을 열었다. <site & space>(2013, 두산 갤러리, 뉴욕), <젊은 모색>(20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사진 미래색>(2012,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휴스턴 FotoFest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Discoveries>(201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김태동

KIM Taedong

Day Break-053, 150x194cm, Digital pigment print, 2013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
140x100cm(each), Archival pigment print, 2011

노순택

NOH Suntag

노순택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공부하다 멈췄다. 교수신문과 오마이뉴스 기사를 거쳐 다큐멘터리 웹진 이미지프레스(imagepress.net)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무크 <이미지프레스>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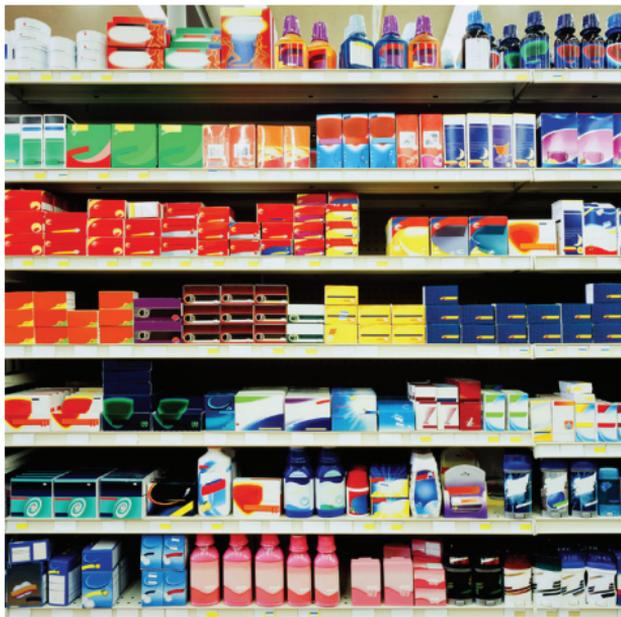
그의 주요 작업은 분단에 관한 현재적 기록이다. 한국전쟁의 과거 흔적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현재의 사건들과 정황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의 문제가 반세기전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필름에 담고자 한다.

<좋은, 살인>(2010, KT&G상상마당, 서울), <성실한 실성>(2010,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망각기계>(2012, 학교재갤러리, 서울), <실성한 성실>(2012,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어부바(2013, 류가현, 서울) 등 개인전과 <Real DMZ project - from the North>(2013, 아트선재센터, 서울), <에르메스 미술상 3인전>(2013, 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림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518 기념재단, 평화박물관, 한국미술은행, 독일 F.C. Gundlach Collection에 소장되어 있다.

패서디나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순수미술 전공으로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나의 장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문형민 작가의 작업은 서로 다른 형식 안에서 펼쳐지며 작가 고유의 작품 성향을 유지시킨다. 작가는 각각의 요소들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는데, 이는 작가가 '형식과 내용의 모순' 그리고 '블랙 유머'라는 공통의 기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dumb project〉(2008, 서미엔투스갤러리, 서울), 갤러리쌔지(2005), 성곡미술관(2004년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룹전으로는 〈SEMA 청년 2012_열두 개의 방을 위한 열두 개의 이벤트〉(201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Enormous Eyes〉(2010, The Guild Gallery, 뭄바이), 〈Rosonance Green Korea - Climate Change in the Bosom of Culture〉(2009, 토탈미술관, 서울), 〈The 3rd Nanjing Triennial〉(2008, 난징, 중국), 〈City_Net.Asia〉(2007,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등에 참여하였다. 현재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Unknown City #19, 120x120cm, Digital C-print, 2008



문형민
MOON
Hyungmin

박진영

Area Park



야구글러브, 230x185cm, Light jet print, 2011

박진영은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공부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새로운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도와 모색을 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디지털이 도래한 시대에 사진의 원점 혹은 사진 본연의 의미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찾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의 길-미야기현에서 앨범을 줍다〉(2012, 에르메스 아뜰리에, 서울), 〈방랑기1989-2013〉(2013,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The Game〉(2006, 금호미술관, 서울) 등 다수의개인전을 개최했다. 2008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대구사진비엔날레, 〈한국사진60년〉(200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사진의 풍경〉(2007,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미술에 꼬리 달기〉(2013, 경기도미술관, 안산), 〈사춘기 징후〉(2006, 로댕갤러리, 서울) 등의 그룹전과 미국 휴스턴뮤지엄, 산타바바라뮤지엄, 독일 레인반하우스 사진박물관 등 국내외에서 총 100여회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 UBS, Art Link, 서울올림픽미술관, 동강사진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백승우는 중앙대학교에서 사진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순수 미술과 이론을 공부하였으며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Fine art and theory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6년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Real World를 계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미지의 객관성, 직접성, 보편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진 안팎으로 감춰져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간극을 포착하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작으로는 리얼 월드, 블로우 업, 유토피아, 아카이브 프로젝트, 메멘토 등이 있다.

파리〈Blow up〉(2006, 가나 보브루갤러리, 파리, 프랑스), 〈Real World〉(2007, 인사아트센터, 서울), 일우사진상 수상전 〈Utopia / Blow up〉(2010, 일우스페이스,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가졌고 대표적인 그룹전으로는 〈Dreamland〉(2010, 풍피두센터, 파리, 프랑스), 〈archiTECHtonica〉(2010, CU미술관, 콜로라도, 미국), 〈Photography Now〉(2010,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Double Fantasy〉(2009, 마루가메이노쿠마겐이치로현대미술관, 가가와현, 일본), Platform2009(2009, 기무사, 서울), Photo on Photography(2008, 금호미술관, 서울) 등이 있다. 2010년 일우사진상 (일우문화재단), 2001년 사진비평상(타임스페이스)을 수상하였다. 영국 에딘버러의 포트폴리오파운데이션, 런던 Michael G. Wilson 컬렉션, 미국의 휴스턴미술관, 산타바바라미술관,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백승우

BACK Seungwoo

Memento 2015-KBDB's choice, 30x218cm, Digital pigment print, 2015





Dreamroom-Seungwon, 100x160cm, Lambda print, 2003

원성원

WON Seungwon

원성원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쾰른 미디어 예술대학을 졸업하였다. 원성원은 현실과 공상이 뒤섞인 독특하고 섬세한 사진 콜라주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가의 사진은 디지털 작업이긴 하나 일일이 공간과 대상을 촬영한 후 이를 섬세하게 중첩시켜 아날로그적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소스들을 합성하여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수 많은 레이어가 만들어내는 작가의 사진은 분명한 시각이미지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이며 작가의 남다른 상상력으로 공간과 인물을 흥미롭게 병치시킨다. 이를 통해 허구적 세계 속 새로운 내러티브를 빚어낸다.

《Character Episode I》(2013,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1978 일곱살》(2010, 가나컨템포러리, 서울), 《Tomorrow》(2008, 대안공간 루프, 서울) 등 국내외에서 수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 도쿄 모리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독일 오스트하우스미술관, 미국 산타바바라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윤병주는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했다. 'Hwaseong'(화성)은 지역을 탐구하고 기록 또는 기념화하는 작업이다. 그는 실제 경기도 화성시에 살았던 경험과 화성 [Hawseong, 華城] 과 화성 [Mars, 火星]의 동음이의어로부터 이 작업을 착안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난개발이 심화되어 척박하고 삭막한 화성시의 이면을 보여준다. 작업의 진행은 현재 NASA에서 우주의 화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일부 차용하거나 비슷하게 흉내 내어 기록한다. 그림으로써 화성[火星]탐사와 도시개발의 목적을 결부시킨다.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어떤 것이 무의미한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같이하며 화성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경기도미술관에서의 <미술관 스캔들> 전시를 비롯해, 마이클 슐츠갤러리의 <FF2>(201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으로는 <Exploration of Hwaseong>(201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과 <Mark on Hwaseong>(2014, 송은아트큐브, 서울)이 있다. 2013년에는 미래작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제36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입상하는 등 젊고 실험적인 시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윤병주

YOON Byoungjoo

Exploration of Hwaseong, 200x600cm, Inkjet print, 2013





천년고도 12, 76x110cm, Archival digital C-print, 2012

장보운

JANG Boyun

장보운은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사진이미지들을 소재로 삼아 존재의 기억과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보운은 사진을 '본다'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사진의 피사체와 연관된 것들을 흔적을 찾고, 사라진 과거의 순간에 스스로를 이입하여, 그 장소들을 여행하는 등 사진의 대상을 재생하여 다시 이미지화하고 글로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밤에 익숙해지며〉(2014,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너의 첫 번째 해〉(2013, 갤러리현대, 서울), 〈밤에 익숙해지며〉(2011, 갤러리팩토리, 서울), 〈기억의 서: K의 슬라이드〉(2009, 브레인팩토리, 서울) 등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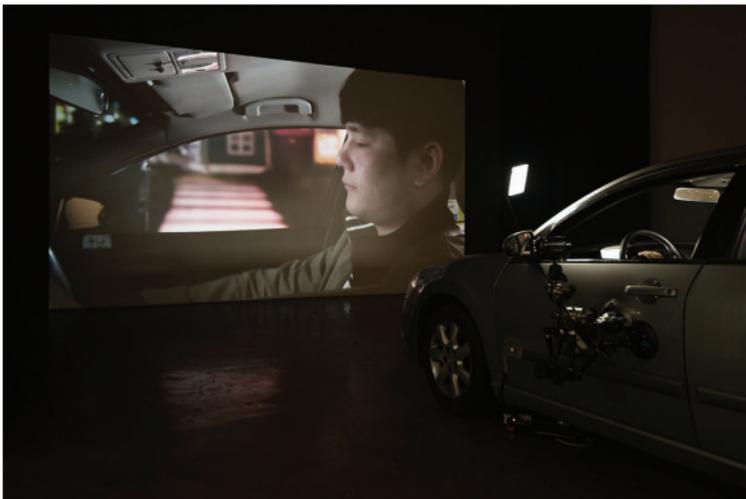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를 거쳐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연두는 상상력을 통해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현실과 병치시키거나 뒤섞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 사랑 지니>에서는 개인의 현실과 꿈을 한쌍으로 묶어 내고, <로케이션>은 영화 세트장과 유사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현실과 중첩시켜 보여주며, <수궁기억>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 낸다. 이런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이미지의 주술적인 힘에 대해 탐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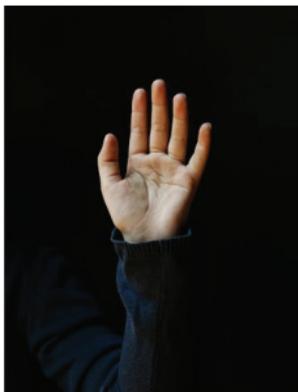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 2008년 상하이 비엔날레 아시아유럽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모던 먼데이즈 프로그램>(2008,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뉴욕현대미술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알렉산더칼더재단, 에스티로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정연두

JUNG Yeondoo

Drive in Theater, 가변설치, Mixed media, 2015





끝나지 않은 문장 1(열 개의 사진 액자)
100x61cm(each), Archival pigment print on wooden frame, 2014

정희승

CHUNG Heeseung

정희승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거쳐 영국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진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서울에서 작업 중이다. 사진을 주된 매체로 다루는 작가는 사진의 재현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사유하며 책과 오브제, 사진설치의 형태로 매체에 대한 확장과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다.

〈정희승〉(2014, PKM갤러리, 서울), 〈아트스펙트럼〉(2014,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새벽4시〉(2014,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적절한 은유들〉(2013, 아트선재센터, 서울), 〈Still Life〉(2014,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등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난지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하태범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및 동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후,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MFA)하였다. 하태범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충격적 이미지는 작가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또 다른 일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무심하고, 무신경하며, 아무런 연민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서 출발했다. 2008년부터 <White>시리즈를 통해서 작가는 모든 대상을 하얗게 만드는 작업을 선보이게 되었고 이미지의 탈각화, 의미의 객관화를 시도하였다.

<White-시선>(2014,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대화법 - 협업프로젝트>(2013, 홍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H, 서울), <Nimmst Du richtig wahr?>(2009, 달렘 예술문화협회, 베를린, 독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9,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5' 후보작가 4인에 선발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독일 LB-BW은행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하태범

HA Taebum

파키스탄 폭탄테러, 120x180cm, Di-bond aluminium core, 2010





Restoration and balance, 120x163cm, Pigment print on the fineart paper, 2015

한경은

HAN Kyun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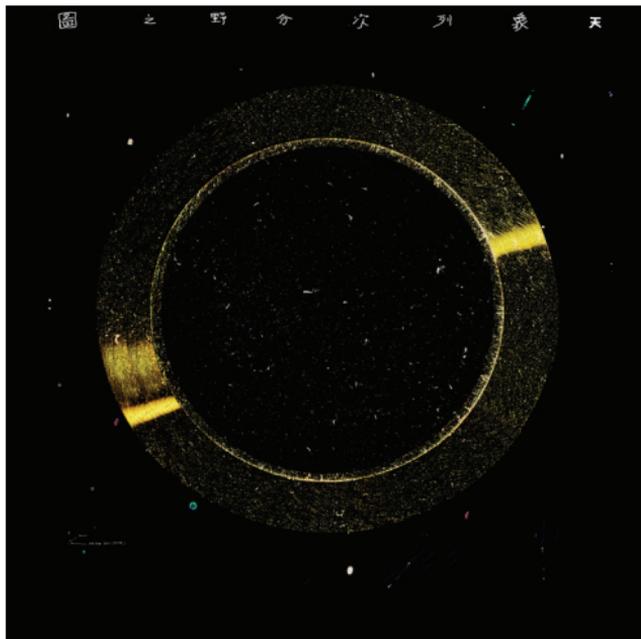
한경은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통합예술 치료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묵정墨井>, <기억의 가소성> 등의 작품으로 '치유적 사진'을 모색하는 사진작가이며, 한국사진치료학회의 사진심리 상담사이기도 하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인간내면의 심리와 무의식이 몸과 기억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발현되는지 연구하며 시각화하는 것이다. 친밀함과 인간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몸, 영적 성숙을 향한 내적 체험을 유도하는 몸의 의미에 주시하며 역시나 수동적이며 영적인 도구인 사진을 주된 매체로 활용한다.

<기억의 가소성>(2014, 토탈미술관 The Room, 서울), <Body and nature>(2014, 아트스페이스J, 분당), <TRIALOG>(2013, 주한독일문화원, 서울), <The show must fo on_Singapore>(2013, Praxis Space, 싱가포르), <Road Show 2013 백령도&인천>(2013, 토탈미술관, 서울), <사진과 사진>(2013, KT&G상상마당, 서울), <사진 미래2013>(2013,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homo empathicus>(2012, 브레다미술관, 네덜란드), <2009플랫폼 인 기무사>(2009, 아트선재센터, 서울)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황규태는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경향신문 사진기자와 미주동아일보 대표를 역임했다. 사진기자로 재직하며 다큐멘터리 흑백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한 황규태는 196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사진의 한계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개척해나간다. 극단적인 풍요와 황폐로 뒤덮인 미국 서부의 세기말적 풍경과 컬러현상소 암실기사로 일했던 당시의 환경은 그의 작업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진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선구적 행보를 시작한 황규태는 현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인생은 즐거워〉(2011, 아트파크, 서울), 〈꽃들의 외출〉(2013, 신세계 갤러리, 서울), 〈사진 이후의 사진〉(2014,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등 다수의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한국민속촌미술관, 워커힌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Uranology(천상열차분야지도), 280x250cm, Latex print, 2005



황규태
HWANG
Kyutae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2015.04.30(목)-06.21(일)

기획. 토탈미술관
관장. 노준의
큐레이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김은아, 최단비, 추희정

참여작가.

구본창, 권순관, 권오상, 김도균, 김진희,
김태동, 노순택, 문형민, 박진영, 백승우,
원성원, 윤병주, 장보윤, 정연두, 정희승,
하태범, 한경은, 황규태

퍼블리케이션 디자인. 김대일
작품운송 및 설치.

김진태(현대아트디스플레이), 박근수(미지아트), 김성하

후원.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